

새한미디어, 워크아웃 졸업 “총력”

반도체 · 전자용 필름에 양극활물질로 매출 확대 ... 자구노력도 추진

2000년 10월부터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새한미디어가 2007년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 신규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새한미디어(사장 이석희)는 현재 신규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자회사 매각 등 자구노력 이행을 통해 마련된 자금의 대부분을 추가 개발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11월3일 발표했다.

새한미디어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제품 가운데 핸드폰이나 PDP 등에 사용되는 인슐레이션 필름이 2003년 시장진출 이후 2년여 만에 국내시장 점유율 1위(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방성 전도필름도 국내 최초로 핸드폰 모듈에 단독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3년부터 공급을 시작한 토너제품이 최근 미국시장 진출에 성공했고, 유럽의 환경규제 강화로 재활용 토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매출 증대가 예상되는 등 신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사업을 대체할 차세대 주력제품인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생산이 2006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고, 추가 개발중인 기능성필름 부문도 신규자금 투입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어서 향후 신규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규모가 더욱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구계획으로 검토중인 충주 사택부지(10만평) 매각이 계획대로 성사되면 지가 상승에 따라 최소 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 재무구조 개선과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한미디어는 “10월 자회사인 새한마텍 지분 전량을 250억원에 매각한 바 있는 등 자구노력이 가시화되는 2007년에는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1/04>